

데스크



조상운 편집국장

전국의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 맞이 명소가 모두 닫혔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제주 지역에서도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은 물론 유명 오름들까지 모두 출입을 통제했다. 그러나 새해는 떠올랐다. 또 새로운 한해가 시작된 셈이다. 세월이 흐르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세월이 흐르는 것을 두고 흔히 촛살같이 지나간다고 한다. 시위를 떠난 화살보다 더 빠른 표현이 있다. 돌이 부딪칠 때 불빛이 한 번 번쩍하고 곧 없어진다는 뜻인 석화광음(石火光陰)이 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2020년이 석

2021 신축년 새해다짐

화광음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현대 사회 들어 세월이 빠르다는 것보다 더 합당한 표현이 있다. '급변(急變)'이라는 단어가 있다. 상황이나 상태가 갑자기 달라짐을 일컫는다. 과거엔 시간과 속도 등을 따지면서 어린아이가 어느새 성장해서 어른이 됐다는 얘기를 자주하곤 했다. 하지만 현재는 말 그대로 순식간에 변하고 마는 세상이 됐다. 세상이 급변하면서 사라지고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이 부지기수다. 비근한 예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마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과 우리나라의 현 실태이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멸 위험에 처한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100곳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도시로 향하는 이유도 한 몫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직업들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소멸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에 있는 요즘,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사라질 직업과 관련된 각종 기사나 자료가 넘쳐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기계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소위 잘 나가는 직업도 미래에는 사라진다고 한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 일자리 역시 소멸하고 새롭게 생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소멸과 생성,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게 바로 현실이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새로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려하지 않고 있다. 기득권 세력이 가장 앞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득권은 세월이 흘러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

해선 하나둘씩 내려놓아야 한다. 기득권이 그렇지 않은 층 모두에서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야 하는 게 대세인데, 문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다. 기성세대는 소멸될 것이고, 사라지는 세대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낼 것이다. 낙엽이 흩으로 돌아와 새로운 싹으로 돌아나듯이 원리대로 살려고 하고, 변화의 속도에 맞추려는 노력 또한 필요한 때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그들도 소멸된다. 이후엔 그들의 DNA를 물려 받은 또 다른 똑똑한 자들이 생성될 것인가. 똑똑함과 현명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보다 냉철하고 현명한 이들이 더 필요하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현명한 사람일까 곱씹어본다. 신축년 새해엔 보다 더 현명해지자.

사설

팬데믹 이겨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지만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 새해에 대한 희망이나 설레는 마음이 결코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초부터 예고 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암울하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새해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새해를 내딛는 발걸음이 가벼울지 없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물론이고 우리 앞에 놓인 지역현안이 적잖아서 그렇다.

철저한 방역이 가장 큰 과제

무엇보다 새해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가장 큰 과제이다. 한동안 뜸했던 코로나19가 지난해 11월부터 속출하기 시작했다. 11월 22일에 그쳤던 확진자가 12월에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한달만에 3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2월 21일 제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월 말까지만 해도 80명 안팎이었다. 그해 불과 한달만에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400명을 넘어섰다. 신규 확진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지난해 선방했던 제주의 방역관리가 올해에도 시험대에 섰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2015년 11월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지 5년이 흘렀으나 찬·반 갈등 등은 여전하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갈등 해소를 위해 1월 중에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새 국면을 맞았다. 그런데 여론조사 문항과 방식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아 갈등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게다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가 "참고용"으로 못박으면서 더욱 우려된다. 여론조사가 자칫 갈등의 끝이 아닌 또다른 시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해야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새해에도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집단면역을 갖출 때까지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들 예상하듯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게 문제다. 기득이나 어려웠던 지역경제가 녹록지 않아 더욱 걱정스럽다. 실제 제주경제의 핵심인 관광산업은 최악의 늪에 빠졌다. 또 건설업 등으로 못박으면서 더욱 우려된다. 여론조사가 자칫 갈등의 끝이 아닌 또다른 시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2공항 또다른 갈등 우려

제주4·3특별법 개정 역시 절실

한 속제다. 4·3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부와 여당이 4·3희생자에게 위 자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4·3특별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통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4·3희생자와 유족의 소원을 하루속히 풀 수 있도록 제주도와 의회 등 도민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경제도 말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제주관광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확여행을 비롯한 단체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전세버스는 고사위기에 처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숙박시설 등은 겨우 버티다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나마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리면서 렌터카 등 극히 일부 업종만이 반짝 수익을 누리는데 그쳤다. 자영업자들은 존폐 기로에 내몰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갈과 채소 등 1차 산업도 피해를 빚겨가지 못하고 있다.

열린마당

신축년(辛丑年) 비전 품은 청정환경국



강희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한 청정환경국은 비전(vision)을 품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말씀 드린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작년에 한차례 큰 흥역을 치렀다. 2018년 8월에 신규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불과 2년에 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대국 대과의 조직개편안에 휘말려 국 존폐의 기로에 걸렸다. 청정환경국이 출범한 후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소속 직원들과 일사분란하게 더 움직였다면 작년과 같은 위기는 겪지 않았을 것이다. 더 많은 성과와 노력이 필요했지만 부족했던 부분을 통렬히 반성한다. 올해 청정환경국은 서귀포시민을

위해 우직하고 근면 성실한 노력으로 보답하겠다. 올해 환경분야 510억원, 녹지산림휴양분야 260억원 등 총 770억원(2020년 대비 9% 증가)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 바람길길 조성사업, 재활용도움센터 추가 설치 사업 등 청정환경 인프라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언택트 산림휴양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취약계층 500여명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취약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귀포시 환경의 미래를 이끌 친환경 그린뉴딜 사업 추진, 웰니스 산림휴양·치유 가치창출, 농어업분야에서의 환경책임 강화 등 전국을 선도하는 신(新) 환경정책을 발굴하고 선진 친환경문화 구축에도 앞장서야 한다. 신축년을 맞아 청정환경국은 큰 미래비전을 품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소의 성품처럼 웃음이 서귀포시 시민을 위한 청정 감동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뉴스-in

원 지사, 방송사 신년 토론회 발언 주목

코로나·정부 현안 주제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선 출마 언급에 대해 본보와의 신년 대담에서 시가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오는 5일 국내 모 방송사의 신년 토론회 참석해 이에 대한 발언이 나올 지 관심. 김현석기자
31일 해당 방송사에 따르면 지정 토론자는 원 지사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확인.
이번 토론회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와 문제인 정부 집권 4년의 현안들에 대한 의견이 다뤄지는데, 발언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 백규탁기자

항'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대비 0.28% 올랐으며, 제주도 전주 대비 0.06% 상승. 또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상승한 가운데, 제주지역도 0.10% 오르며 지난날 2일부터 이날까지 9주 연속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 김현석기자
서귀포 공공문화시설 휴관
○...서귀포시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31일부터 오는 3일까지 나흘 동안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임시폐쇄 조치를 단행. 이종섭미술관·기담미술관·소암기념관·서북전시관 등은 그동안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용인원의 30% 이내 사전예약제 등 제한관람을 시행했으나 특별 조치에 따라 임시휴관에 돌입.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문화시설 제한 관람·휴관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 현영종기자

제주 아파트 가격 상승세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달 23일 이후 6주 동안 상승세가 지속. 31일 한국부동산원의 '2020년 12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이기성(건국대학교 교수) 아버지 전주이공 석형(前 두산농산 제주지점장·前 제주시농협 이사·향년 83세)께서 서기 2020년 12월 31일 05시 50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21년 1월 1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1월 2일(토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가족묘지
부인 김선옥
아들 이기성 며느리 김이선
기협 김은정
기호
기봉 흥정숙
※ 연락처 : 이기성 010-6272-5984
이기협 010-5288-6752
이기호 010-6762-6752
이기봉 010-6320-6819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신화(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1월 1일
아들 곽창배 며느리 김정희
김옥자
장득 사위 박영선
딸 고인순 미순 오성보
양숙 흥명기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양홍공 유기(향년 6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1월 1일
부인 임경림
아들 홍창준 며느리 강지연
홍혁
딸 홍수정 수지 사위 류원영

용강동 가족묘지용 매매
묘지허가 가능
연락처 010-6360-9167
010-7666-231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출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출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P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립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